

『스피노사』와 그의 思想 (一)

(그의 第三百年 誕生日 記念)

李灌鎔

十一月二十四日是「스피노사[스피노자]」의 第三百年 誕生日이다. 우리는 그의 人格을 回想하고 그의 思想을 檢査코자 한다. 단순히 「三百年 記念」이란 一種의 機械的 理由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와 우리 사이에는 本質的 關係가 있다. 그의 生活은 現代 傳記分子에게 暗示해주는 것이었고, 그의 思想은 現代□□에 武器를 供給해주는 것이었다. 傳來的 哲學史에서는 그의 哲學을 或은 觀念論(헤겔), 或은 神秘主義(빈델만트)라고 불려왔으며, [노발리쓰]는 그를 [神에 醉한 사람(Ein Gottnetrunkenen Mensch)]이라고까지 불렀다. 그러나 그의 哲學에 唯物論的 要素가 있고, 그의 宗教論에 無神論的 傾向이 있으며, 그의 社會觀에 改革的 態度가 分明하여, 그의 生存해 있을 때는 猶太人과 耶蘇教徒, 教會牧師와 哲學教授, 手工業者와 政治家, 當時 和蘭支配系統의 모든 分子가 協同하여 或은 團體的 除名, 或은 宗教的 破門, 或은 權力的 掠奪 等 모든 手段으로 그를 迫害하든 歷史的 事實에 빚죄여 보거나, 그의 死後(一六七七年) 百年이 지나도록 獨逸에서만 六十餘名의 反駁論文 發行者가 잇든거슬 보든지, 現代에 잇서서도 全世界 耶蘇교회에서 그의 철학을 異端視하는 事實을 보면, 그의 哲學이 歐美[썬어조아]思想界에 一大 波瀾을 일으킨 것만은 事實이다. 우리도 그가 意識的으로 唯物論者요 無神論者이었든지는 多少間 의심하는 바다. 그러나 그의 思想을 徹底히 檢討해 본 結果 그의 哲學이 形而上學的으로 一元論的 唯物論이요, 神學的으로 汎神論的 無神論이요, 認識論的으로 唯理論이요, 意志自由論에 의하여 決定論을 主張하였고, 心理學的으로 平行說을 主張하면서도 物質에 思惟能力을 賦與하였스며, 倫理學的으로 功利論을 根底 삼었스며, 國家論的으로 民主主義的 共和主義 權力說을 하얏고, 그의 出發點이 數學的, 機械論的 自然科學이요, 그의 方法이 辨證法的인 것을 主張 안 할 수 없다. 勿論 그는 現代에서 意味하는 辨證法的 唯物論者는 아니다. 그는 辨證法的 唯物論의 先驅者이다. 그의

用語(羅典語)가 中古의 『스콜라』哲學的이요 그 認識論에 獨斷論的 要素가 있
섯으며, 그 當時의 科學的 智識이 充分히 分化되지 못하여서 그 思想體系의
渾然한 原義대로 보면 우리의 主張과 다른 見解가 잇슬 것을 否認할 수 업
스나, 그 思想으로부터 論理的 必然으로 생기는 歸結은 그를 辨證法的 唯物
論의 先驅者라 안 할 수 없다.

× ×

『스피노사』의時代

『스피노사』는 一六三二年에 나서 一六七七年에 죽었다. 그럼으로 이 四十
五年 동안은 『콜롬부쓰[콜롬버스]』가 發見한 米洲의 富源을 金林檎으로 삼
고, 腐敗되어가는 西班牙王國, 暴君政治 下에 統一된 佛蘭西王國, 民主主義化
한 『크롬웰』의 英共和國, 西班牙의 彈壓에서 『八十年戰爭』 後에 自主獨立된
和蘭共和國이 서로 掠奪戰爭을 한참 繼續하든 時代이다. 다만 獨逸만이 『三
十年戰爭』으로 國際的 殖民地 掠奪에 參加하지 못하였고, 當時 歐羅巴의 商
業 『뿌어쵸아지』가 殖民地의 直接的 掠奪과 間接的 搾取로 처음으로 發生되
고 잇든 時代이다. 특히 和蘭의 商業 『뿌어쵸아지』만은 米洲의 黃金과 人血
로 腐敗된 巨人 西班牙의 船舶을 直接으로 掠奪할 뿐 아니라, 西班牙 國內에
和蘭의 工場 製造品을 洪水 가티 侵入식히여 西班牙의 莫大한 金銀을 和蘭
으로 流注식히었다. 當時의 和蘭은 全歐洲 內의 가장 富饒한 國의 嫉妬의 對
象으로 되었었다. 그 까닭에 英佛과 二十年 동안이나 戰爭을 繼續하다가 佛
國은 壓倒하였고, 英國과는 不利한 平和條約을 締結하였으나, 依然히 和蘭의
商業뿌어쵸아지만은 國內에서 政治經濟的 hegemoni를 維持하였었다. 當時의
和蘭은 二百五十萬 人口의 小國으로서 膏沃한 土地와 風力利用, 多數한 運河
로 因한 運送의 低廉, 海運業의 發展으로 因한 全世界 海運의 獨占 等 經濟
的 事情에 依하여 商業의 先進國이 되었었다. 當時의 統計에 依하면 全人口의
三割이 手工業貿易에 從事하였고, 二割은 金融業 또 三割은 漁業에 從事하였
고, 農民 一割이오 官吏, 將校, 乞人 合하여 一割에 不過하였었다. 民族的 富를
標準하면 海運業者 一人이 農民 三人의 價値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勞
動이 모든 富의 源泉이란 것이 밧서 看破되었었다 한다.

그 國家의 組織은 共和聯邦制이었으나 市會州會(七個) 全體 會議 어느 곳
에든지 委員은 전혀 金融資本階級에서 選舉되야 結局은 富饒者의 寡頭政治
에 不過하였었다.